

2021년 현충일 특별 집회 표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에 대해,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악한 이 시대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진리의 영, 곧 실재의 영께서
성경에 기록되고 담긴 영적인 사실들 위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받는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 있는 말씀을 접촉하여,
신성한 실재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적용된 말씀으로
우리 존재 안에 주입받을 수 있다.

신성한 경륜의 완결을 위해
우리는 신성한 진리로 조성되어야 하고
신성한 진리의 길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하며
신성한 진리의 확산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진리의 빛을 회복하는 것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진리이다.
교회의 증가는 진리의 확산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시간을 내어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교회의 번성과 확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체 주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며,
악한 이 시대에서 진리를 선포함

메시지 1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며,
세상의 현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함

성경: 요 18:37하, 엡 2:2, 롬 12:2, 요일 5:19하-20

- I.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진리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 답후 3:16.
- A. 진리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 요 1:1, 14-17, 14:6, 16-17, 15:26, 16:13, 17:17, 18:37하.
 - B.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고 오해받고 잘못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다 — 답후 2:15.
 - C. 회복에는 가장 높은 진리, 곧 지난 수 세기에 걸쳐 회복된 진리들의 완결인 진리가 있다 — 답후 2:2, 15.
- II. 요한의 글들에서 '진리'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알레테이아)는 신성한 계시의 내용인 신성한 경륜의 모든 실재를 가리키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밝혀진다 — 요 17:17, 18:37하.
- A. 진리는 하나님이다.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은 육체가 되셔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신성한 것들의 실재가 되셨다 — 요 1:1, 4, 14-17.
 - B. 진리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분 안에 거하며,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실재, 구약의 모든 예표들과 그림들과 그림자들의 실재, 그리고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이시다 — 골 2:9, 16-17, 요 4:23-24.
 - C. 진리는 그 영이다. 그 영은 변형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실재이시며, 신성한 계시의 실재이시다 — 요 14:16-17, 15:26, 16:13-15.
 - D. 진리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신성하고도 영적인 모든 것들의 실재를 계시하고 전달한다 — 요 17:17.
 - E. 진리는 믿음의 내용이다. 믿음의 내용은 완전한 복음의 실재이며, 우리가 믿는 것의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 엡 1:13.
 - F. 진리는 하나님, 우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한 실재이다. 이것은 창조물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고 있다 — 롬 1:18-20, 2:2, 8, 20.
 - G. 진리는 참됨, 진실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신실함이다. 하나님께 있는 이러한 미덕은 신성한 미덕이고,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이러한 미덕은 인간의 미덕이며, 신성한 실재가 흘러나온 것이다 — 롬 3:7, 15:8, 고후 11:10, 요일 3:18.
 - H. 진리는 참되거나 실재적인 것들, 일(사실)들의 진상이나 실상, 실재,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짓됨, 속임, 숨김, 위선, 오류와 대립된다 — 막 12:32, 요 16:7, 롬 1:25.

III. 신성한 진리는 절대적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고, 신성한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요삼 3-4, 8.

- A.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제쳐 두고, 사적인 관계들을 돌보지 않으며, 자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마 16:24-25, 벰전 1:22.
1. 진리가 유일한 표준이며,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 자신과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에게서 구출될 때에만 진리의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 요 8:32, 요이 2, 요삼 3-4.
 2. 만일 진리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살후 2:10, 요일 5:20.
 3.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해 절대적이지 않다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갈망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킬 것이다 — 잠 23:23.
 4.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해야 하고, 진리의 길을 취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진리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 벰후 2:2.
- B.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들과 주관적인 진리들 모두에 대해 절대적이어야 한다 — 요 8:32, 14:6.
1.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모두 있다. 객관적인 면은 주관적인 면을 위한 것이다 — 롬 8:34, 10, 골 3:1, 1:27.
 2. 객관적인 교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이 1-2, 4, 요삼 3-4, 7-9상.
 3.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특별히 삼일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들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 요 1:14, 14:16-20, 담전 6:15-16, 담후 4:22, 3:15-16.
 4. 매우 중요한 주관적인 많은 진리들이 매장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진리들이 부활하여 회복되고 부활한 진리들이 되었다 — 요 17:17, 18:37하.

IV.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할 때,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탄, 마귀, 거짓의 아버지, ‘이 세상의 통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의 신’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 엡 2:2, 요 8:44, 12:31, 고후 4:4.

- A. 마귀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죽음과 어둠을 가져온다. 진리의 반대인 거짓은 어둠과 함께한다 — 요 8:44.
1. 마귀는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은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 요 8:44.
 2. 사탄의 어둠은 신성한 빛과 대립되고, 사탄의 거짓말은 신성한 진리와 대립된다 — 요일 1:6.
 3. 신성한 진리가 신성한 빛의 표현이듯이, 사탄의 거짓말은 사탄의 어둠의 표현이다 — 요 8:12, 44.
- B. ‘이 시대의 신’은 사탄, 속이는 자, 현시대의 통치자이다. 그는 오늘날의 세상을 지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눈멀게 하여 사람들의 경배를 탈취하는 자이다 — 고후 4:4.
1.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눈멀게 하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절에서 ‘생각’은 생각의 이해력을 가리킨다.
- C.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 요일 5:19하.
1. 사탄적인 세상 체계 전체와 타락한 인류인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다.
 2. 헬라이어에서 ‘악한 자’는 치명적이고 해악을 끼치는 자, 즉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 사악하게 만드는 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악한 자가 바로 사탄 곧 마귀이며, 온 세상이 그 안에 놓여 있다 — 요일 5:19하.

3.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심판받았다 — 요 12:31, 14:30, 16:11.
- D.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은 많은 시대로 이루어지는 사탄의 체계를 가리킨다.
1. 한 시대는 사탄의 체계인 세상의 한 부분이다.
 2.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풍조(직역하면 ‘시대’)'는 사탄의 체계의 현재와 현대의 유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사용된다.
 3.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를 가리킨다.
- E.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원한다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라고 한 바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1. 여기서 본받는 것, 혹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표현을 취하는 것인데, 이 표현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인 우리의 내적 존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 요 1:12-13.
 2.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된 우리가 이 시대와 같은 형상이 될 정도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는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게 함으로써 생각의 영이 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일해 놓어진 새로운 요소에 의해 새로워지게 함으로써,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 엡 4:23, 고전 6:17, 롬 12:2.
- F.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진리를 허리띠로 두르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엡 6:14상.
- G. 우리는 참되신 분 안에 있음으로써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신성한 진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 요일 5:20.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진실하시고 실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 요 1:14, 18, 요일 5:20.
 2.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 참되신 분’, 곧 참되신 분이시자 참이신 분을 두 번 말한다.
 - a. ‘참되신 분’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 되신 하나님, 곧 객관적이시지만 우리의 생활과 체험에서 참되신 분이 되신 하나님을 가리킨다.
 - b. 참되신 분은 신성한 실재이시다. 참되신 분을 아는 것은 신성한 실재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함으로써 이 실재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 c. 20절은 하나님 자신인 신성한 실재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의 실재가 된 것을 가리킨다. 이 전에 우리에게 객관적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적인 실재가 되셨다 — 요일 5:6.
- H. 우리는 참되신 분과 진리의 영을 알기 때문에(요일 5:20, 4:6),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하나님-사람들로 만드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께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읍시다.”(요 18:37하)라고 말씀하시며 증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